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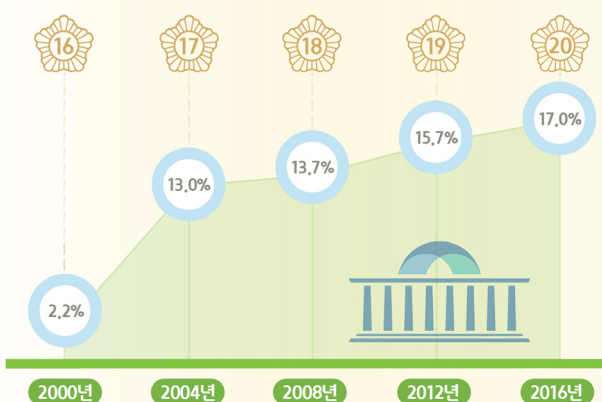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원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1 / e-mail: kwh56@kwdimail.re.kr)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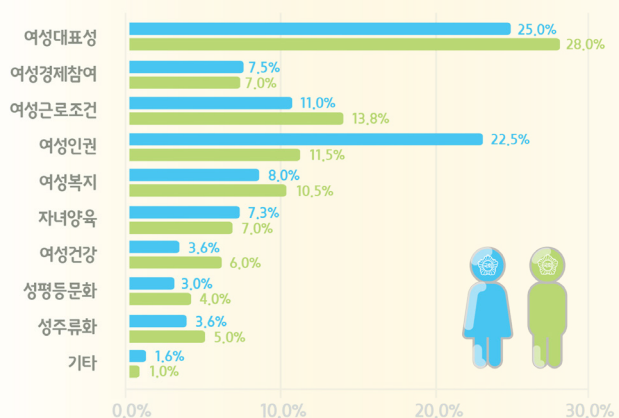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 증대와 대정부 견제 활동에서의 성인지성 증대가 기대되어 옴. 이러한 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를 크게 적극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양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성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음. 결국 여성 국회의원의 실질적 대표성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당선자 현황과 제19대 국정감사 질의내용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당선자 비율



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내용 비교



1. 배경 및 문제점

-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에 대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이후 할당제)의 효과성에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이의를 보이지 않는 반면, 할당제의 목적, 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 다시 말해 할당제의 혜택을 받은 여성 국회의원들 및 여성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대가 일종의 하나의 경향성을 띠기 시작한 제18대 국회 이후부터 이러한 지적과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 게다가 최근 들어 여성계는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국회 내 남녀동수를 주장하고 있음.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 역시 “그렇다면 여성 국회의원 증가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가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입법활동과 대정부 견제활동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할당제의 실효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양적 효과성

- ♥ 제도 도입 이후 국회에서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 증가
 - ▶ 제16대에 할당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제19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제16대 16명, 제17대 39명, 제18대 41명, 제19대 47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됨.
- ♥ 여성정치인 풀 확대에 의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
 - ▶ 이러한 안정적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확보와 더불어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여성 국회의원의 지역구-비례대표의 구성비도 점진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제16대의 경우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약 30%,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약 70%를 구성하였으나, 제19대의 경우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약 40%,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이 약 60%로 나타남.
- ♥ 여성 국회의원의 국회 참여 지속성 확대
 - ▶ 제16대부터 제19대까지의 여성 국회의원의 선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회 여성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의원과 비교하였을 때 다선의원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제18대부터 4선 및 5선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남성의원의 비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진적인 여성 국회의원의 국회참여 지속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성 국회의원 참여 상임위원회 확대 및 임원 역임 비율 증가

〈표 1〉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임원 구성 비율 현황

(단위 : 명)

정당	16대 국회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		
	총원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총원	여성의원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위원장	17	1	1	17	3	1	16	3	1	16	2	2
간사	34	3	3	34	4	3	32	5	2	32	6	2

자료 『국회사: 제16대 국회』(2011) 631-3, 658-9 ; 『국회사: 제17대 국회』(2012) 607-9, 616-7 ; 『국회사: 제18대 국회』(2014) 635-7, 642-3; 국회 홈페이지 제19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상반기:2012년7월1일/후기:2014년 7월 1일); 대한민국국회, “위원회 현황”

- ▶ 여성 국회의원들의 인적 파워의 변화는 국회 내에서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량을 증대시키고 활동 공간을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의 개수가 늘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상임위원회의 수도 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 여성 국회의원 중 제16대에는 전·후반기 각각 1명, 제17대, 제18대에는 전·후반기 각각 3명, 1명, 제19대에는 전·후반기 각각 2명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 17개 상임위원회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 위원들의 위원장 역임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다양한 다선의원들의 분포가 여성 국회의원보다는 남성 국회의원이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 이렇게 다방면에서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목소리와 권익이 대변되는 공간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높이는 근거가 되어 옴.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여성 국회의원의 질적 대표성에의 효과

♥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가 입법 활동에 미친 영향

- ▶ 제16대에서 제19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옴. 제16대 여성 국회의원들 중 18명의 의원이 113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에는 총 51명의 의원이 2,82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와 맞물려 여성관련 법률안의 발의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여성 국회의원 발의한 법률안 중 여성관련 법률안도 제16대 40건에서 제17대 282건, 제18대 414건, 제19대 635건으로 증가하였음.
- ▶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발의한 총 발의건수를 고려할 때, 제16대의 경우, 35.4%가 여성관련 법률안에 집중된 반면, 제17대의 경우 25.1%, 제18대의 경우 22.7%, 제19대는 22.4%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 국회의원들의 기타 법률안 발의 건수 증가를 의미하는데,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대가 기타 영역들에 대한 관심 표명의 여지를 확대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대는 할당제 도입의 효과가 크다는 점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대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비율 감소는 할당제의 효과성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한편 입법 활동의 결과 측면인 법률 반영 비율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
- 제16대의 경우, 초선의원의 법률반영 비율은 40.6%, 재선이상 다선의원의 경우 75.0%라는 비율을 보여주었지만, 제17대의 경우에는 초선의원이 41.5%, 재선 이상 다선의원이 31.8%였음. 제18대 역시 초선의원의 법률안 반영 비율이 36.3%로 다선의원의 법률안 반영 비율인 30.0%보다 다소 높았으나, 제19대에는 다선의원의 법률안 반영 비율이 40.8%로 초선의원 37.7%보다 높게 나타났음.
 - 보통 다선의원일수록 발의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의정활동의 경험 등의 축적으로 인해 통과 건수가 늘어난다는 통념이 있는데, 4대에 걸친 여성 국회의원들의 선수별 법률안 통과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한 경향성은 발견할 수 없었음.
- ▶ 발의된 법률안의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다소 추상적 개념으로 정치력이라는 요소를 들 수 있음. 이는 다선의원들에게 더 높은 기대감을 보이게 하는 요인임. 그러나 본 연구 결과, 4대에 걸친 여성 국회의원의 법률안 통과에 대한 선수별 차이나 경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여성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서의 정치력 발휘가 일관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표 2〉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영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국회 대수	법률안 내용	처리									총
		법률반영				법률미반영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계	부결	폐기	철회	기타	계	
16대	여 ¹⁾	0	4	15	19(47.5)		19	2		21(52.5)	40(35.4)
	기타 ²⁾	2	6	27	35(47.9)		34	4		38(52.1)	73(64.6)
17대	여	8	17	90	115(40.8)		165	2		167(59.2)	282(25.1)
	기타	14	64	225	303(36.0)		526	13		539(64.0)	842(74.9)
18대	여	2	13	132	147(35.5)		262	5		267(64.5)	414(22.8)
	기타	19	51	382	452(32.3)		927	20		947(67.7)	1,399(77.2)
19대	여	10	17	216	243(38.3)		387	5		392(61.7)	635(22.4)
	기타	42	102	579	723(33.0)		1,454	17		1,471(67.0)	2,194(77.6)

* 1) 여성관련 법률 및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안

－ 여성관련 법률안

- 직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한 여성관련 법률안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
-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 여성인적개발과 관련된 사안들
- 성 및 가족 대상 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안들과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가족 - 양육 - 돌봄과 관련된 지원책들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문제와 관련된 사안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안

- 전통적으로 여성이 중점을 두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안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
- 법률안 제목이나 제안 내용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의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다루는 내용
- 계층간-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내용

2) 기타 :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안

자료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16대~제19대 법률안

♥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가가 대정부 견제 활동에 미친 영향 : 성인지적 관점

▶ 분석 방법

- 해당 기간에 남녀 국회의원이 행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키워드 별 질의 분류한 뒤, 질의내용을 여성대표성,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인권, 여성복지,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 평등문화, 성 주류화, 기타 등과 같이 10개로 분류함.

가. 본회의 대정부 질의

♥ 제16대-제19대 국회의 남녀의원의 대정부질의 활동에 나타난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제16대에는 19건, 제17대에는 42건, 제18대에는 28건, 제19대에는 18건의 성인지적 관점의 질의가 이루어졌음.

♥ 이들을 성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4대 전반적으로 여성국회의원이 52건으로 총 108건 중 4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 국회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고려한다면 대정부질의 중 성인지성 관련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엿볼 수 있음.

♥ 그러나 제17대가 남녀 국회의원의 성인지 발언이 42건으로 제일 많다는 점과 여성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발언 역시 제17대에 18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계의 '제17대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이 성인지적 활동에 소극적이다'라는 평가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으로 보임.

♥ 질의 주제는 매년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16대와 제17대에는 여성대표성관련 질의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던 반면에 제18대와 제19대로 오면서는 여성경제참여, 여성근로조건, 여성복지, 자녀양육, 성평등문화, 성 주류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또한 108건의 질의를 성평등과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성평등 관점의 질의가 76개(70.4%)로 전통적 관점의 질의(32개)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나,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재생산보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질의가 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여성 유권자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성관련 의제의 주류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표 3〉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 성인지 발언 현황

(단위: 건, %)

	16대	17대	18대	19대	합계
남성의원	9(47.3)	24(57.2)	16(57.1)	7(36.8)	56(51.8)
여성의원	10(52.7)	18(42.8)	12(42.9)	12(63.2)	52(48.2)
합계	19(100.0)	42(100.0)	28(100.0)	19(100.0)	108(100.0)

〈표 4〉 대수별 성별에 따른 질의 주제

(단위: 건, %)

분류	16대			17대			18대			19대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여성 대표성	0	1	1	1	2	3	3	2	5	1	0	1	5 50.0	5 50.0	10 100.0
여성 고용	5	2	7	3	1	4	2	1	3	2	2	4	12 63.2	7 36.8	19 100.0
여성 근로조건	0	0	0	2	1	3	1	1	2	0	2	2	3 42.9	4 57.1	7 100.0
여성 인권	0	1	1	5	5	10	2	1	3	2	2	4	9 47.4	10 52.6	19 100.0
여성 복지	1	0	1	4	1	5	2	0	2	0	1	1	7 77.8	2 22.2	9 100.0
자녀 양육	1	3	4	5	6	11	5	2	7	2	2	4	13 50.0	13 50.0	26 100.0
여성 건강	0	0	0	0	0	0	0	3	3	0	0	0	0 0.0	2 100.0	2 100.0
성평등 문화	0	0	0	3	1	4	1	1	2	0	1	1	4 66.7	2 33.3	6 100.0
성 주류화	2	3	5	1	1	2	0	1	1	0	2	2	3 30.0	7 70.0	10 100.0
합계	9 47.4	10 52.6	19 100.0	24 57.1	18 42.9	42 100.0	16 57.1	12 42.9	28 100.0	7 36.8	12 63.2	19 100.0	56 51.9	52 48.1	108 100.0

나. 국정감사 질의

📍 제16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까지 총 16회의 국정감사 질의분석은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에 대한 적극성으로 이어졌는가.
-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에 대한 주도성으로 이어졌는가.
-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의 다양성에 기여 했는가.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에 대한 적극성으로 이어졌는가?

- ▶ 각 국회별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질의자 비율은 제16대 11.3%, 제17대 23.7%, 제18대 19.4%, 제19대 24.5%임. 4대 국회 동안 여성관련 질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총 703명으로 이들 중 여성 국회의원은 141명인 20.1%를 차지하였음. 이는 각 국회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고려한다면 낮은 수치가 아님.
- ▶ 또한 전체 국회의원 대비 여성관련 질의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남성 국회의원들은 전체 남성 국회의원 중 54.7%만이 참여한데 비해 여성 국회의원은 87%가 참여하였음. 이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유권자의 대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함.

〈표 5〉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질의참여 비교

(단위: 명, %)

구분		16대	17대	18대	19대	전체
질의 참여율	남성의원	134 (88.7)	119 (76.3)	158 (80.7)	151 (75.5)	562 (79.9)
	여성의원	17 (11.3)	37 (23.7)	38 (19.4)	49 (24.5)	141 (20.1)
	합계	151 (100.0)	156 (100.0)	196 (100.0)	200 (100.0)	703 (100.0)
전체 대비 질의참여율	남성의원*	52.0	45.8	61.2	59.7	54.7
	여성의원**	80.9	86.0	82.6	94.2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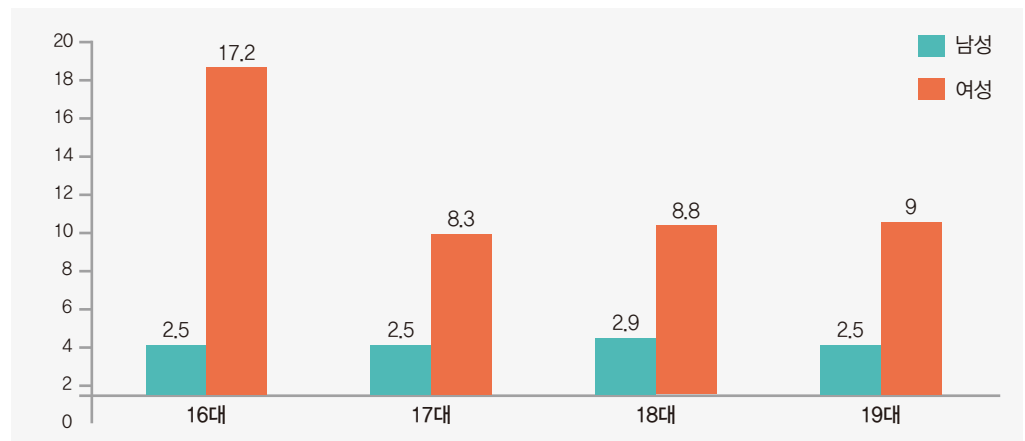
* 남성의원들의 비율은 대수별 총선에서 당선된 남성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대수별 국회에서 활동했던 여성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에 대한 주도성으로 이어졌는가?

- ▶ 남녀 국회의원의 질의건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2,827개의 질의 중 여성 국회의원이 한 질의한 1,373개로서 48.6%를 차지하였고 남성 국회의원은 1,454개인 51.4%로 나타나 남성 국회의원이 좀 더 많았음. 이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 그러나 전체 질의자 중 20.1%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 국회의원들이 전체 질의의 절반가량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수적으로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었지만 여성관련 질의에 있어서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음.
- ▶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성관련 질의건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질의건수는 줄어들.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질의의 주도성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제16대 국회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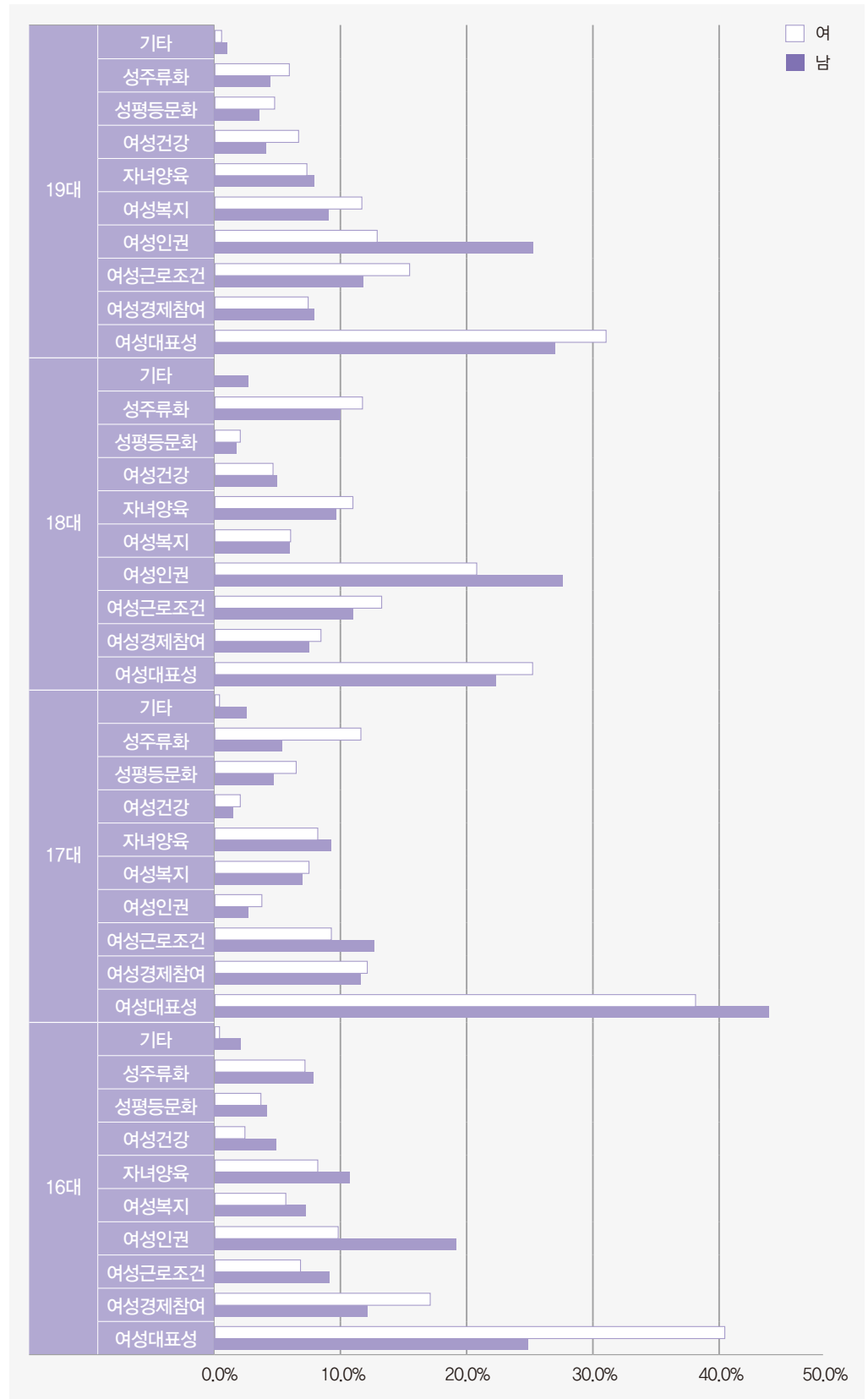
[그림 1]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1인당 여성관련 질의건수 비교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가 여성관련 질의의 다양성에 기여했는가?

- ▶ 여성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각 대수별로 여성대표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높았음. 제16대는 40.4%, 제17대 38.8%, 제18대 24.9%, 제19대 30.5%로 여성대표성관련 질의는 제16대에서 가장 많았고 대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음. 특히 제17대 국회의 경우에는 여성 국회의원 보다는 남성 국회의원들이 여성대표성관련 질의가 더 많았음. 다음으로 많은 질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여성인권에 대한 것임. 제17대를 제외한 나머지 제16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여성대표성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음.
- ▶ 여성 국회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대수별로 비교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대표성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여성 국회의원의 질의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제16대와 제17대는 여성대표성에 집중되었던 질의들이 제18대와 제19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경제참여와 여성근로조건, 자녀양육, 여성건강, 성평등문화, 성 주류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질의비율이 증가하였음.
- ▶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여성관련 질의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임.

[그림 2] 제16대~제19대 남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내용 비교



3. 정책제언 :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안1) 지역구 여성후보공천할 당제 의무화 및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 마련

- ▶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혐오 등이 반동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또한 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의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여성의 권익 대변의 역할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할당제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권익 대변의 여지를 확대시켜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으므로 실효성 있는 할당제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지역구 할당제가 확고한 기반으로 정착되어, 여성 국회의원의 실질적 양적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 그러나 2010년 공직선거법 47조 5항의 신설과 52조의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역구 여성후보공 천 30% 할당제는 그 실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오고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여전히 권고조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 그러므로 김원홍 외(2015: 34-36)의 주장처럼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④항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52조에 할당제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로써 등록무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액비율이 높은 선거보조금 삭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제안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 조금 증액 및 배분방식 개선

-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정당들로 하여금 선거후보 공천시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나, 현행제도는 최근 만료된 정당별 국회의원 수의 비율과 최근 실시된 정당별 국회의원 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한 정당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이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 따라서 현행의 배분기준 방식을 각급 선거에 실제로 출마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수와 비율이 반영되도록 개선시켜야 함. 또한 2002년에 도입한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액 산정기준 즉,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증액하여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도록 해야 함.

제안3)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 참여 의
무화 및 성인지적 심사
위원 임명

- ♥ 여성의 권익 대변성을 확대할 필요성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한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대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 대변 확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정치후보자가 소위 공천받기 위해 당의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여성정치인들의 개인적 역량으로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며, 당 지도부에 성인지성이 확산되고 강화될 때까지 인위적으로라도 여성 친화적 공천심사의 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정당들의 각급 공직선거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 “지역구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의무화 및 위반 시 강제이행조치가 마련”되면, 여성의원인 17%선인 남성 편향집단(skewed group) 성격의 우리나라 현 국회가 여성의원 30%의 임계치 의회를 거쳐 남녀동수의 성평등 의회까지 가기 위한 실질적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이는 또한 다선 지역구 여성의원인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이에 따른 국회 내 의사결정체계로의 여성의원 참여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질적으로 성 평등한 국회의 구현이 기대됨.
-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증액 및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한 정당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으며, 여성후보자 공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이상 여성위원의 참여 의무화 및 성인지적 심사위원 임명”을 통해, 여성이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1차 관문인 공천 과정에서 친여성적 그리고 양성평등적 환경을 조성으로 인해 여성의 국회 내 진출 가능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적 인식을 지닌 남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 역시 높임으로써 양성평등적 국회와 정책결정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 (2011). 국회사: 제16대 국회.

_____ (2012). 국회사: 제17대 국회.

_____ (2012). 국회사: 제18대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위원회(2010). 여성위원회현황. 서울: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주관부처: 국회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정당여성국,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